

주담대 금리 또 오르나... 코픽스 상승 전망에 7%대 가시화

금융업계, 코픽스 3%대 이상 예측
은행 조달비용 ↑... 대출금리 영향
일각선 예대금리차 대책 필요 지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5%까지 낮아졌던 주담대 금리 역시 연 7%대로 재진입 할 것이라 분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15일에 8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9년 만에 최고치인 2.90%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공시될 8월 코픽스는 3%대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매달 새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예대금리차 공시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인상 경쟁에 돌입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기예·적금 잔액은 전달 대비 17조9776억원 증가한

추가대출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개인신용대출 직장인중금리대출

최저 연 **4.97%** ~ 최고 연 **10.27%**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에도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는 7%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뉴스7

768조5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정기예·적금에 자금이 몰리면 은행 조달비용이 커지고 이것은 다시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다. 또한 국채금리도 오르면서 금융채 금리도 전월보다 상승하고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 역시 지난 13일 4.114%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지난달 4%에 접어든 이후 지난 1일에는 4.397%까지 치솟기도 했다.

15일에 8월 코픽스가 공시되면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연 7%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금리는 4.31~6.35%, 변동금리는 4.07~6.321%다.

지난 6월 주담대 7%대를 기록한 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5%대로

내려왔지만 3개월 만에 다시 6% 중반대를 향해 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금리는 더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1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에선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상단 기준)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남은 회의에서도 인상 기조가 예상된다.

의사록에서 금통위 위원은 “물가가 올해 하반기 정점을 보이더라도 둔화 속도가 완만하고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현 전망경로가 유지된다면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내년에도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높여가되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향후 국내외 경제 흐름 변화를 보며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수신금리 경쟁에서 비롯된 사태이기 때문에 ‘예대금리차 공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면서 은행이 적정한 이윤을 창출하도록 맥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기업 매출증감률 20.5%... 성장성 ↑ 안정성 ↓

한은 2분기 기업경영 분석

전분기비 매출증감률 증가폭 확대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익성 하락세

올해 2분기 기업들의 성장성은 개선됐지만 안정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증감률은 20.5%로 전분기(17.0%)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조업이 22.2%로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비제조업도 18.2%로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가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총자산증감률은 2.3%로 전년 동기(1.4%)와 비교해 늘었다.

수익성 지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원매출액영업

(2022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구분	성장성지표		수익성지표		안정성지표	
	매출액 증감률 ¹⁾	총자산 증감률 ²⁾	영업이익률	세전 순이익률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2021년 2분기	18.7	1.4	7.4	8.2	86.6	24.6
2022년 1분기	17	3.7	6.3	8.1	88.1	23.9
2022년 2분기	20.5	2.3	7.1	7.2	91.2	24.5

단위 : %, 주 : 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말대비

/한국은행

이익률은 7.1%로 전년 동기(7.4%)와 소폭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석유·화학,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8.6%, 비제조업은 전기·가스업 등을 중심으로 5.1%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제조업 가동률 증가로 인해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전력구입비가 늘어 수익성은 악화됐다”고 말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7.7%)과 중

소기업(6.4%) 모두 전년 동기보다 주춤했다.

부채비율은 전분기 88.1%에서 올해 2분기 91.2%로 늘었다. 차입금의존도도 같은 기간 23.9%에서 24.5%로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부채비율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부채(매입채무 등)가 증가했다”라며 “차입금의존도는 단기차입금 증가에 기인해 상승했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동원산업-동원엔터 합병... 11월 신주 상장

중복 지배구조 단순화... 전문성 강화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안건이 가결됐다. 사측은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해 지속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동원산업은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동원산업빌딩 20층 강당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합병신주가 상장된다.

앞서 동원산업은 지난 4월부터 기업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추진해왔다. 중복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원을 효율적

로 배분해 각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더 나아가 이번 합병으로 그룹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원산업은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해 주당 단가를 낮추고 유통주식수를 확대한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양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 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됐다”며 “합병과 관련한 남은 절차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하면서 그룹의 성장 로드맵과 시너지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포스트 전기차’ 수소 생태계도 활성화

>> 1면 ‘빨라지는 친환경차...’서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등 변수가 생겼지만,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고성능 배터리 가격도 안정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대중화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GM이다. 일찌감치 ‘3만달러’ 전략을 내놨고 볼트EV와 EUV에 이어 인플레이션과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퀴녹스EV 등 대중적인 모델을 3만달러 수준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도 ME B 플랫폼을 활용해 I.D4를 시작으로 보급형 모델 출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도 2000만원대 전기차를 개발하며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대중화가 현실화하며 내연기관차를 친환경화할 방안도 빠르게 추진되는 분위기다. 완성차 업계가 전 모델을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으로 대체하는 가운데, 포르쉐를 중심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연료 ‘e퓨얼’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트 전기차’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 때 전기차와 경쟁 구도를 이뤘던 수소차가 주춤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수소 저장과 생산 등 난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면서 수소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얼마나 공략하는지에 따라 완성차 업계 구도가 크게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은 “美·유럽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져”

BOK이슈노트

“인플레이션·에너지 등 악재 우려 증대”

미국과 유럽 모두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보다 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1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미국·유럽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응한 금리인상 가속, 에너지 수급차질 심화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인플레이션 지속과 이에 대응한 급속한 금리인상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다. 연준의 정책대응이 과도하거나 미흡할 경우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장기화 가능성이 주요한 리스크이며 전쟁, 이르기온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지속도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이 다양한 지표와 계량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해본 결과 최근 들어 미국·유럽 모두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보다 유럽의 침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유럽 경제의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무역경로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격의 원천(수요 또는 공급 충격), 글로벌 경제 파급양상 등에 따라 국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전망이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미국의 경기침체로 대외수요가 위축될 경우 국내 성장 및 물가오름세가 동시에 둔화됐다”라며 “반면 유럽발 공급충격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추가로 크게 상승할 경우에는 국내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